

## 2008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도자료

IMF는 지난 2주간 연례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한국측의 생산적이고 협조관계(engagement)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한국 경제는 도전적인 세계 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이 탄력성(resilience)을 보였지만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에서의 추가적인 이득을 제한하고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내년의 상승세 이전에, 올해 성장은 4.1%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는 심화된 세계 경제 둔화, 변동성이 확대된 국제 금융 상황으로의 회귀 또는 더 높은 유가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에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수 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약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 더 수용적인(more accommodative) 거시정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시장개입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국한해 온 한국의 변동 환율 제도는 과거에도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적합하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한(healthy) 반면, 지속되는 세계 금융 혼란에 따라 몇 가지 크지 않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인 신용 시장 경색 때문에, 도매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자금 조달의 출처를 다각화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점차 관련된 리스크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강화된 위기 관리 계획(contingency plan)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은행 여신의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가 둔화되면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여신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될 필요가 있다. 헤지 활동 및 최근의 외국인의 국채 매입에 따라 단기 외채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단기 외채는 주시 되어야 하나, 그 원천과 용도가 10년 전 위기 상황의 것과는 매우 다르므로,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금융 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 2009년 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견지에서, 심화된 금융 부문의 경쟁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감독 당국은 더 복잡한 기관(institution) 및 상품(product)으로 부터의 리스크를 포함하여,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앞에 놓인 구조적인 어려움을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적절하게 목표로 하고 있다. 감세계획은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장기적 재정압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조세개혁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